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성바오로대성당 - 로마

† 오늘의 전례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1-17 참조)

절대자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이신 분이 또한 지극히 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의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려주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제1독서 1열왕 17,17-24

제2독서 갈라 1,11-19

복음 루카 7,11-17

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문창규 베드로 신부 | 양남본당 주임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녀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녀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로 보낸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큰 슬픔을 가진 부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 역시 이런 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난 후, 이 과부에게 펼쳐진 고통의 세월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과부의 삶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과부의 사무치는 슬픔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도 큰 슬픔에 잠겨있는 과부의 얼굴을 눈여겨보신 예수님께서서는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지칠 대로 지친 과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시라고 굳게 믿고 고백한 사람도 없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미어지는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여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두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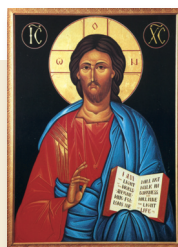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고 고단하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이곳저곳 상처투성이인 우리 사회도, 다시 ‘생명의 길, 빛의 길’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사건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신앙의 해 교리 퀴즈⑧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11)

인간의 존엄을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찾은 공의회 교부들은 인간이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힙니다. 사목현장이 가르치는 사람살이의 근본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은 자명하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구원 받도록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간

사목현장 24항은 인간 소명의 공동체적 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목현장이 말하는 인간의 사회성은 단순한 사회학적 공리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본성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지창조 때에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창세 2,18)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처럼 사람도 서로 만나고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이 삼위일체의 사랑, 자신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체험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사목현장 32항).

서로 달라도 사랑할 수 있다

이어서 사목현장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외모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사목현장이 제시하는 기준은 ‘공동선’입니다(26항). 이 ‘공동선’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 볼 때에만 인류가 한 가족이며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 존중 사상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27항)한다는 가르침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겉모습과 사고방식이 달라도, 하느님을 부모로 모시고 예수님을 만형으로 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함께 바람직한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며, “참으로 친절과 사랑으로 …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항).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사회정의의 바탕입니다. **필요**



“그리스도의 ()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느님의 천상 영역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감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665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켜야 하는 **틀**, 지향해야 하는 **본질**

이동철 대건안드레아 신부 | 구암본당 보좌

평일 미사 중 봉헌 때에 물과 포도주가 담긴 주수병을 가지러 간 어린이 복사들이 제대로 오지를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입니다.

“내가 물이야!”

“아닌데...”

신입 복사가 물이 담긴 잔을 잡으려 하자, 선배 복사가 자신이 물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입 복사는 그렇게 배운 것 같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겨도 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물을 가지고 오든지, 봉헌예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사를 봉헌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고민했고 그들의 고민 때문에 미사의 분위기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복사는 사제와 신자들이 미사를 경건하고 원활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두 어린이 복사가 했던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많은 모임에 속해있고 그 모임마다 지켜야하는 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구성원의 행위가 정해놓은 틀을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 중에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과연 그 행위가 모임의 본질을 흐리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틀을 벗어난 행위라 할지라도 가끔 모임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비록 틀을 벗어났지만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중에 당시의 유대교 종교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등 율법을 어기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데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다.’는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본질을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과 본질의 관계, 자주 고민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필요**

어미 펠리칸의 사랑

어느 날 어미 펠리칸이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어린 새끼가 그만 독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독사는 펠리칸 새끼를 유달리 좋아하는데, 그 까닭은 펠리칸의 피가 진하고 깨끗해서 맛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그 피를 일단 맛보고 나면 인이 박힐 정도라고 합니다. 독사에게 물린 새끼는 독에 오염되어 진한 피가 묻어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죽어 가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썼습니다. 먼저, 긴 부리로 새끼 펠리칸의 몸통 아랫부분을 사정없이 찢아대자, 의식을 잃고 죽어가던 새끼는 깜짝깜짝 놀라며 아파하면서도 죽음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침내 새끼의 몸통에 구멍이 뚫리고, 독에 오염된 피가 빠져나간 새끼 펠리칸은 피가 모자라 이내 가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미 펠리칸은 곧, 자기 부리로 자기 몸에서 가장 더운 피가 흐르는 곳을 찢아서 상처를 내고는 그곳에서 나오는 피를 부리 밑의 자루 주머니에 받아 거의 다 죽은 새끼의 부리를 열고 수혈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끼의 몸은 어미의 신선한 피로 가득 채워졌는데, 피의 농도가 어찌나 진한지 새끼 몸통 아랫부분에 뚫린 구멍으로 조금도 새어 나가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끼는 다시 살아났고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기 피를 다 쏟은 어미는 천천히 죽어 갔습니다.



부리가 크고 아랫부리에 신축성이 있는 큰 주머니가 달린, 특이한 모양을 가진 사다새라고도 하는 펠리칸은 조류들 중에서도 모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가톨릭 기도서의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 기도문에 "주 예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라는 내용이 있듯이 펠리칸은 13세기경부터 교회 안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상징화되었는데 이는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 어미는 부리로 자기 가슴을 찢아 그 피로 먹여 살리는 습성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새끼를 살리는 어미 펠리칸처럼 측은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상일 것입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성 안토니오 (6월 13일)

기적의 성인이라고도 불리우는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태어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하여 사제로 서품 되신 후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창립하신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뛰어난 설교와 수많은 기적으로 많은 이단자들을 개종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헌신 하셨습니다. 36세의 젊은 나이에 선종하신 성인께서는 선종하신 다음해에 시성되었으며 비오 12세 교황님으로부터 '교회학자'

로 선포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수호자로 공경을 받으신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6월 14일 금요일은 (故) 박창수 요한 몬시뇰 4주기입니다.

■ 교구장 대주교님 미주지역 사목방문



미주지역을 사목방문하고 계신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 6월 2일(일) 캐나다 켈거리 성 안나 한인성당에서 첫영성체 미사를 봉헌하시고 첫영성체한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 영성사진 콘테스트 4월 수상작 시상



대구주교 영성사진 콘테스트 4월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5월 29일(수) 오후 2시 월간 〈빛〉 편집실에서 열렸다. 최우수상 나영자(리디아, 월성성당) 자매, 우수상 최종훈(야고보, 청도성당) 형제, 장려상 양대원(프란치스코, 상인성당) 형제에게 각각 상금과 기념 액자가 수여 되었다.

■ 제20회 가톨릭 교직자의 날



제20회 가톨릭 교직자의 날 행사가 6월 1일(토) 오전 10시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에서 학교법인 선목학원 소속 14개 초·중·고·대학교 교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교구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님의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의 특강과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빵도 중요하지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6월 10일(월) 11:30 범여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미사 및 일일피정	6월 10일(월) 9:30 월성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수료자 월례미사	6월 10일(월) 20:00 꾸르실료교육관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10일(월) 11:00 성건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15일(토) 10:00 월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및 특강	6월 15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6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성음악 평화 미사	6월 15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성소 | 피정

앗숨(렉시오 디비나)

일시: 매주 월요일 19:00~21:00
대상: 미혼여성 누구나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6.18(화)~19(수), 매일 셋째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전성당, 326-5004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기간: 6.21(금)~23(일), 2박 3일
장소: 대구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주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
대상: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신자
문의: 한국CLC, (02)333-9898

김응렬(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특강

일시: 6.18(화) 14:00~16: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주제: 여성과 성숙한 신앙생활

회비: 5천 원

문의: 여성위원회, 254-6115

천생연분 피정(춘천교구 소속)

오상철 신부의 천생연분에서 인연을
찾으세요! 초혼, 재혼 수시 접수 중
네이버 카페: 모곡피정의 집
문의: 피정담당자, (033)434-4204

교육 | 모집

가톨릭남성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일시: 6.16(일) 19:00
장소: 우봉관(경일 여고)
내용: 성가곡 및 일반곡
문의: (010)3352-8748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0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물 앞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모래놀이치료사상담사 1급 자격교육

일시: 6.29(토) 10:00~19:30

장소: 계명문화대 유아교육관 302호
내용: 모래놀이치료, 즐거운모래놀이 등
강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김보애 박사
문의: 상지유치원, (010)6231-6023

2박3일 성령 세미나

일반: 7.26(금) 14:00~28(일) 17:00
청년: 8.2(금) 13:00~4(일) 17: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월막피정의집)
신청: 일반 12만 원 / 청년 8만 원
문의: (054)954-0951 / (010)4419-1220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집

대상: 여대생(종교 무관)
주소: 대전 서구 갈마로 187-1(괴정동)
문의: 성체선교클라라수녀회,
(042)534-8876

마신부님 아일랜드 · 영국 영어연수

기간: 7.23(화)~8.15(목)
초등: 기숙사 / 중·고: 홈스테이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를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길 안 건 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철, 단열시공
판넬, 창호, 철거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나가사키성지순례

제4차 9월25일~28일(3박4일)

순례경비 59만 5천원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 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을주운전증
운전면허 **특급** 행정심판전문

합동 행정 사무소

대표 박수원(스테파노)

대구 MBC 네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

6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6(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6월 가나강좌

일시: 6.16(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외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로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한국SOS어린이마을 50주년 감사미사

일시: 6.22(토) 11:00

장소: 한국 SOS어린이 마을

문의: 983-3154

<http://www.koreasos.or.kr>

교육 | 모집

본당사회복지학교<기본-주일반> 개설

개강: 6.16(일), 과정: 12시간(총 4주)

대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3대리구 사회복지, 641-3456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6.22(토) 10:00, 남산동대신학원

주제: 교회 안의 평신도, 사제,

수도자의 역할 / 5천 원

강사: 최송실(마리아) 수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및 회원 모집

일시: 6.12(수) 14:00 / 수시모집

장소: 교구청 내 사도회 사무실

자격: 천주교 신자 및 교리 중인자

문의: 강청남, (016)520-8330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1차: 7.26(금)~28(일),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교원들을 위한 에듀힐링 신청 환영

어르신 성경 전문 봉사자 교육

기간: 7.2~8.20(매주 화)

총 8주(13:00~17:30)

장소: 바오로딸 2층(회비: 15만 원)

내용: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접수: 425-5185 / (010)7449-1117

채용 | 안내

대건인쇄출판사 직원 채용

자격: 국전 옵셋(MITSUBISHI) 기사

서류: 이력서 지참, 직접 방문 제출

마감: 6.14(금) 17:30까지

문의: 252-6737

교구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인덕(베드로 다미아노)

문의: 253-9550

학생 주보

『무지개 / 새 하늘 새 땅』 문집 발간

교구 청소년국에서는 2011년 대

림 제1주일부터 2012년 그리스

도왕 대축일까지 학생 주보 『무지

개/새 하늘 새 땅』에 수록된 기사

단 학생들의 글과 본당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리교사들의 글

을 엮은 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6

행사 | 모임

교구 가톨릭교직자 대회

대구지역: 6.29(토) 10:00, 대신학원

4대리구: 7.6(토) 10:00, 성동성당

5대리구: 7.13(토) 10:00, 구미대학

대상: 교구 내 유치원, 초·중등 교직자

문의: 학교복음화 담당, 250-3037

제29차 교구 올드레아

일시: 6.15(토) 9:00~16:3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문의: 254-4671

계산성당 문화광장 목요 '소통' 콘서트

일시: 매주 목 12:30~13:30

장소: 계산성당 앞 광장(우천시 취소)

문의: 254-2300 / (010)9577-7819

각종 악기 연주 등 문화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칠곡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욱(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www.gabimaru.co.kr 가비마루 커피

김 재 창(프란치스코) 이 정 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헤지나)

아토피센터·여름·홍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세요!

백내장수술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학교수 원장 박증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지칠·내시경

하늘을

통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www.hangmuns.com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신격동 대우아파트 앞

959-7175